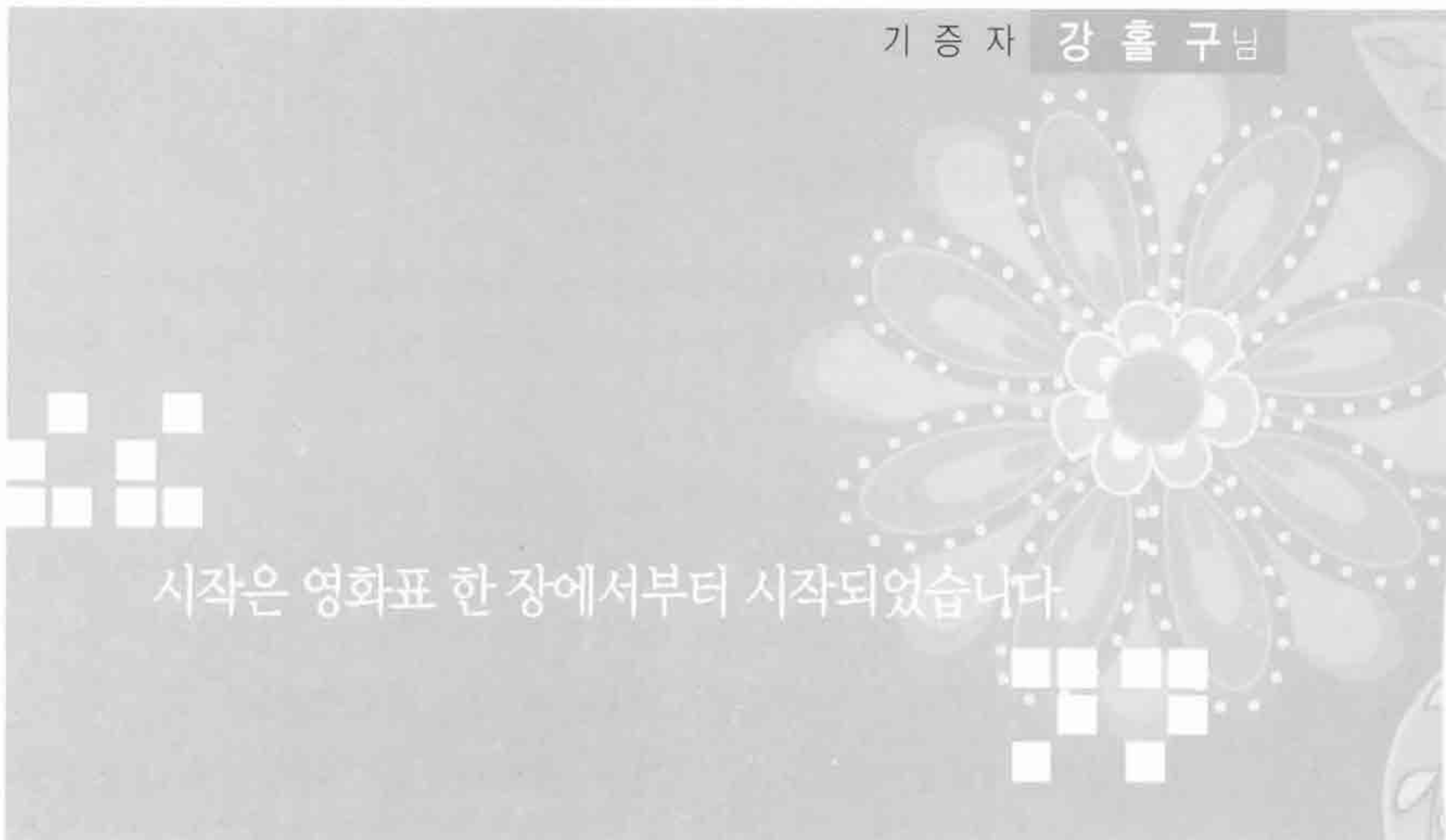


내 생애 최 고 의 순 간



시작은 영화표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혈의 집에서 현혈은 많이 했지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영화표가 탐이 났고요. 그렇게 시작되는 일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2006년 2월경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엔 취업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부모님의 반대로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는데... 2007년 6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환우가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기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척추에 구멍을 뚫어 조혈모세포를 채취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20분 정도 통화 했을까요? 이젠 혈관에서 현혈하듯 채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그런데 주위의 격려와 배려, 특히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간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 기증했던 시간까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의 조혈모세포를 받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3일간 입원을 했는데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편한 병실에



친절한 간호사님, 친구들까지... 내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이렇게들 대우해주시는 지... 무사히 조혈모세포가 전달되었고 채취 후 다음날 바로 퇴원하고 조금은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글로나마 수혜자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다 나오면 100M 달리기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글, 그리고 보호자 어머니의 감사의 편지까지... 작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한 가정에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이제라도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아직 제가 살아 온 날이 얼마 되진 않지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갈 한 여자아이와 그 가정을 생각하며 오늘도 웃음을 짓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우들이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망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조금의 수고가 희망을 잃고 힘들어 하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 된 사나이

슈퍼맨을 꿈꾼 적이 있었다.

가슴의 S자나 특이하게 꼬부라진 앞머리, 밖으로 내입는 붉은 팬티가 부러워서가 아니었다. 탁월한 초능력으로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내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부러웠다. 나이를 먹어가고 초능력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슈퍼맨은 붉은 팬티와 파란 줄줄이를 벗고 인생 걱정을 한 몸에 지고 방향 없는 비행을 하는가 싶었다.

친구들과 매우 건전한(?) 모임을 새벽 1시까지 갖고 귀가 후 켄 컴퓨터. 그간 섭렵한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의 신상품 안내 메일과 요즘 같은 시대에 최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과도하게 친절함 금융권으로부터 온 메일을 지워가던 중 슈퍼맨의 귀환을 명하는 메일을 발견했다.

기증희망서약 후 약 2년 만에 나타난 나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 기증할 당시에 도 어쩐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몇 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더니 하나님, 드디어 출동입니까? 그간 좀 힘들어서 불평 좀 했더니 이런 일을 주시네요? 이 두근거림은 뭘니까? 온 세상이 나만 바라보는 이 기분,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이 기분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다음날 아침, 잠이 덜 깨신 상태로 아들의 충격적인 자기 고백(나-“아버지, 저 사실 슈퍼맨이었습니다. 이제 제 일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아버지-“그래, 이제야 너의 정체성을 깨달았구나. 어서 가서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거라!” ...라고 하셨을 리는 물론 없다.)을 들으신 부모님은 놀랍게도 별 고민 없이 선뜻 허락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기증을 결심한 나보다 오히려 그런 아들을 지지해주신 부모님이 훨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173cm 키와 78kg 몸무게, 하복부에 과도하게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기증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조



직적합성항원형이 완벽히 일치가 되지 않아서 수혜자 측에서 더 기다려보자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나는 슈퍼맨의 예지력으로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올 것임을 믿고 하루 3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다. 지옥에서 돌아온 트레이너(?)와 뼈를 깎는 혹독한(?) 훈련은 계속되었고 약 5개월이 지나 헬스장과의 선불계약기간이 끝나던 그 때,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연락이 왔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 품질의 조혈모세포를 보유한 기증자로 사육(?)하기 위한 기간을 준 것이다. 덕분에 채취 후 의사 선생님께서 통뼈라 주사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말씀과 함께 보통 사람보다 조혈모세포가 약 두 배 정도 많이 나왔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수술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있었다. 처음 해보는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겨내고 수혜자가 부작용 없이 나의 조혈모세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머니와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무뚝뚝하시고 때로는 너무도 강해서 부러질 것만 같았던 아버지께서 수술을 걱정하시면서 나를 얼싸안고 흘리셨던 눈물은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부자간의 자산이 되었다. 수술 전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다소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긴장한 적이 있었다. 간수치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한다. 출근 길 아침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다. “너 그래도 기증을 할 거니?” 순간 나에게 그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비전과 사명이 떠올랐고 아직 그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야죠. 아직 보여주신 일, 맡기신 일 다 못했으니까, 아직 저 데려가실 때 아니잖아요? 데려가시면 손해가 크실 텐데... 연애도 한 번 밖에 못 해봤고, 저도 장가는 가야죠.”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것이 느껴졌다. 채취를 마친 후 감사하게도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깨어날 수 있었고 사전에 고지 받았던 마취 부작용 하나 없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그 때 하나님의 물음에 그렇게 응답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조혈모세포 채취 후 지금까지 수혜자의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편지가 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수혜자 본인에게도 편지가 왔다. 나보다 두 살 누나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딸을 하나 낳은 기분이다. 글씨가 너무 예뻐서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자꾸 편지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쑥스럽다. 사실 나도 그분들 만큼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인생의 의미, 부모님의 사랑,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나도 역시 수혜자이다.

1년 반 정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슈퍼맨의 어깨에는 망토 대신 책가방이 얹어지고 현실의 불안함은 오늘도 변함없이 엄습해온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가슴에 새겨진 슈퍼맨의 자부심인 S마크를 지울 수는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이 경험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수많은 슈퍼맨에게 파란 폴폴이와 빨간 팬티, 망토를 열심히 지급하고 있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기를 마친다.

내 인생의 숙제

아래의 글은 '내 인생의 숙제'라는 주제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글입니다.

『구나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큰돈을 버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제 인생의 숙제는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입니다.'로 시작된 한통의 전화는 1년여 전 장기기증과 함께 조혈모세포기증을 신청했었다는 사실과 현재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한 여학생이 투병중이며, 조혈모세포기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 5분정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괜히 엄한 것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 주변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면 어찌려나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겁먹고, 고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되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비치는 백혈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힘겨운 투병생활은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면 얼마나 아플까? 혹여 아프더라도 그 고통이 저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아픔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확실히도 않은 주변의 말에 겁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현재의 사정을 알려드리고, 기증하고자 하는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순간 표정이 어두워지시긴 하셨지만, 부모님께서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못하게 하고 싶지만 너와 유전자형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도와주거라. 하지만 중간에 너에게 문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시며 허락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전화가 왔을 때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조혈모세포기증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증하겠다는 확실한 생각이 서자 이전의 그 두려웠던 마음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의 조혈모세포가 필요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혹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상태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아이에 대한 간단한 정보 외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이나 신상을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친근감이 생기고,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채우더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헌혈과 기부는 전에도 몇 차례 해왔지만 이렇게 와 닿을 정도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은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고, 후에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이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팔 걷고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조혈모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 것을 많이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많이 남거나, 혹은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는 것들을,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들에게 조금씩 건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는 이와 제가 같이 기뻐하면서 살고, 먼 훗날 언젠가 제 생을 돌아보며 '참 기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많이 많이 나누자' 입니다. 누구 저와 함께 같이 숙제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와 같이 결정하고 난 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기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와 수혜자의 일정과 몸 상태를 고려하여 기증 날짜가 잡혔고,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 오히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셨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코디네이터 분들께서도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과 제 몸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아무런 불편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증일이 다가왔습니다. 채취를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자 어머니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연달아 '수고했다'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일어나려하자 엉덩이뼈 쪽이 살짝 시큰거렸습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개인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겨우 이정도 통증이 오는 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살짝 씩씩해지더군요.

조혈모세포를 기증한지도 몇 개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백혈병 어린이 돕기에 관심을 갖고,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모임인 '징검다리' 의 회원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오는 6월이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국토대장정에 봉사인원으로 참가합니다. 이전의 저였다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을 배웠고, 또 그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기증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가진 숙제를 분명 끝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누구 저와 함께 숙제 하실 분 안계십니까?